# 권징이 한국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of Discipline on Korean Church Growth

윤은수

고신대 학부대학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377
2. 초기 한국교회 성장과 권징 | 378
   2.1.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권징 | 378
   2.2. 세례와 권징 | 381
   2.3 직분과 권징 | 390
   2.4. 이명(移名)과 권징 | 394
3. 해방 이후 한국교회 성장과 권징 | 398
4. 나가면서 | 402

요약

# 권징이 한국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초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성장과 권징(勸懲, discipline)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권징이 성실하게 시행이 된 교회였다. 한국교회의 권징은 세례문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으로 정리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세례문답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살폈다. 또한 이명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이명여부를 생명록에 기록하기도 하였고, 이명증서에 책벌까지 기록함으로 이명을 받는 교회가 계속해서 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는 철저한 권징을 시행한 교회였지만 격동기의 구한말과 민족의 수난기였던 일제강점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성장세는 해방 이후에 더 속도를 내어 수십 년 만에 성도 8백만 시대를 열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로 성장세를 멈추어 버렸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춘 배경에 권징의 실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회는 일제말엽에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상회인 총회와 노회가 권징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회인 당회가 성도들을 제대로 권징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 거기에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권징의 실종에 관한 회개와 권징의 성실한 시행보다는 외적 성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권징은 갈수록 사라져 갔다. 세례의 권위는 상실되어 버렸고, 성도들의 교회 이동에 있어서도 이명증서가 사라져 갔다. 이러한 변화들은 점점 교회를 병들게 하였고, 결국 교회는 성장세를 멈추어 버린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 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길은 권징의 회복이다. 더디겠지만 한국교회가 권징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변화된다면 한국교회는 이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A Study on the Impact of Discipline on Korean Church Growth

주요어

권징, 세례, 이명, 신사참배, 교회성장

Abstract

## A Study on the Impact of Discipline on Korean Church Growth

Prof. Dr. Yoon, Eun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growth and discipline, focusing on early Korean churches. The Korean church was a church in which the discipline was carried out faithfully from the beginning of mission work. The discipline of the Korean church started from the Baptism Catechism and was organized by transfer. The Korean church thoroughly examined the lives of those who wanted to become church members through Baptism Catechism. In addition, it thoroughly managed transfer, issued a letter of transfer, and recorded not only transfer in Saengmyeongrok but also punishments in a letter of transfer so that the church receiving transfer could continue to look at the lives of the church members.

This early Korean Church was a church that carried out thorough discipline, but it continued to grow in the turbulent period of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ich was a time of tribulation for our nation. And after the liberation, the pace of development was accelerating, opening the 8 million age of Saints in decades. However, Korean churches

have stopped growing since the 1990s.

This study reveals the disappearance of discipline in the background of the growth of Korean church. The Korean church was subject to discipline by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Presbytery which were the upper council, due to Shinto Shrine worship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made it impossible for the Session, which was the lower council, to properly discipline the Saints. In addition, after liberation, the national church began to emphasize external growth rather than the faithful implementation of repentance and discipline concerning the disappearance of discipline. As a result, the discipline in the church gradually disappeared. The authority of baptism has been lost, and a letter of transfer recording the saints' movement to new church has also disappeared. These changes have undermined the church more and eventually stoped the church from growing. At present, the Korean church has become a church where the Sunday School disappears, the young people leave the church, and it is criticised and turned away from society. The way in which these Korean churches can revive is the recovery of discipline. If the Korean church is restored to a healthy church by restoring discipline, the Korean church will be able to restore the past history of revival.

Keywords | discipline, baptism, transfer, Shinto Shrine worship, church growth

# 1.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성장과 권징(勸懲, discipline)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교회는 100여년의 선교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교회이다. 초창기인 1890년대의 경우에 세례교인의 수를 보면 장로교가 119명, 감리교가 36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의 수는 15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900년대 넘어오면서 10000명 이상의 신자수를 기록하더니 불과 10년 후인 1910년대는 무려 7배로 성장하여 7만명을 넘기게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는 9만명대, 1930년대는 12만명으로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해방 후의 한국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여 1950년대 50만명에 불과하던 교세가 1960년대 넘어오면서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1970년대에는 300만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넘어오면서는 무려 7백만명을 기록하게 되었다.[1] 이러한 성장세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급격한 성장세였다. 세계 다른 곳의 선교현장과 비교할 때에도 가히 놀랄만한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에는 여러 가지 성장 요인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성장요인 중의 하나로 권징을 예로 들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권징이 잘 시행된 교회였다. 한국선교를 지탱한 외부적인 요인과 선교사들 간의 내부적인 선교적 필요에 의하여 권징은 초기 한국선교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장로교의 독노회(獨老會)와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대리회나 노회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권징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출교에 관하여도 상당수가 보고되고 있다.[2] 이와 같은 결과는 초기 한국교회에서 권징이 교회와 당회 활동의

1)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10), 105-106.
2) 1915년 열렸던 제4회 총회에서는 평북노회는 주색죄와 혼인 등으로 인하여 책벌과

중요한 업무였으며, 개 교회에서 철저하고도 강력하게 권징이 시행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대 부분 권징이 교회의 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교회부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권징에 관하여는 주로 소극적인 편이다. 하지만 당시의 초기 한국교회는 이러한 강력한 권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당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3] 본 연구는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권징의 시행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성장세가 멈춘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권징의 시행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밝히고자 한다.

# 2. 초기 한국교회 성장과 권징

## 2.1.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권징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이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중요한 선교 정책으로 받아

출교를 받은 사람이 무려 360명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황해노회는 신분에 불미한 일과 혼인사와 주일을 범함으로 인하여 전체 202명을 시벌을 하였는데, 그 중에 48명을 출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수교장로회죠션총회뎨오회회록』, 68. 이렇게 당시 한 해에 전체 한국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교인들은 무려 천여 명에 육박을 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로 이단 사상의 경우에만 출교를 시행하는 상황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출교의 결과는 당시 한국교회가 권징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3) 초기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했으며,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구성의 50%를 차지하며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들였다. 자립, 자전, 자치의 삼자원리(Three-self Formula : Self-Propagation, Self-Government, Self-Support)를 내세운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은 1890년에 중국 지푸(芝罘)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1893)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았다.[4] 곽안련(Charles Allen Clark, 1878-1961) 선교사는 네비우스의 한국 방문에 관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5]

> 네비우스의 내한 1년 후인 1891년에 한국 선교회는 첫 연례 집회에서 이 모든 난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련의 규범과 세칙을 채택하였다. 이 규범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우리는 네비우스 원리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6]

이와 같이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이 주도한 한국장로교회 초기 헌법의 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은 권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네비우스는 그의 선교부에서 '선교지 교회의 개척과 발전(*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7] 이 책에서는 선교지에서의 권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4) 자립(自立)이란 현지교회가 선교사들의 선교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며, 자전(自傳)이란 현지인 교회 스스로가 선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자치(自治)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현지인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삼자원리(三自原理)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당시 서구인의 가부장적 선교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5) 곽안련은 평양신학교의 교회법교수를 역임하며 1922년판 헌법의 개정헌법위원으로 헌법을 초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6) C. A. Clark,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LS, 1937), 99.

7) John L. Nevius,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ddions, 1899).

1. 징계는 공공연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물론, 주일을 무시하거나 성경공부 및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시행되어야 한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상세한 지침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경보다 신약성경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징계에는 여론의 찬동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권면과 충고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어 공식적인 심문,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직분정지(Suspension)도 시행되어야 한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회개가 없다면 당사자는 출교(黜敎)되어야 한다.[8]

곽안련은 이 부분을 요약하면서 "성경적 형벌을 통해서 엄격한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9] 곽안련은 네비우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권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다.[10] 선교사들의 이런 인식 속에 한국선교초기 권징은 네비우스의 정신을 수용한 선교사들에 의하여 규범과 세칙에 반영이 되었고 초기한국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곽안련은 초기 한국교회의 권징은 미국교회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시행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을 따르기 위하여 독 노회를 통하여 목사가 임직받기 이전에도 개 교회에 안수 받지 않은 장로인 영수와 대리 목사격인 조사라는 직분을 두기도 하였다. 이것은 개 교회가 속히 독립적인 권징을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기 한국교회가 권징의 시행을 개 교회를 세워 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인식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권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 교회를 통하여 정착되어 가기 시작하였다.[11]

---

8) John L. Nevius,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48-50.
9) C. A. Clark,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0), 33-34.
10) Ibid., 173.

## 2.2. 세례와 권징

초기 한국선교에 있어 한국에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들이 권징을 강하게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한국의 문화적 상황이 있었다.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초기 선교지 한국의 상황은 지나친 음주와 남녀노소를 불문한 무분별한 흡연문화, 그리고 중혼(重婚)과 조혼(早婚) 등으로 인한 복잡한 혼인관계 등이었다. 이러한 악습과 폐단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였고, 가정을 파괴하였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당시의 한국사회는 유구한 역사와 오랜 훌륭한 전통 문화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서 오는 거듭된 민중적 도탄으로 인하여 삶속에서 경험하는 허무함에 따른 방황과 현실적 불안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괴로움을 술과 담배 등으로 이기고자 하는 악습들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주색잡기로 자신을 내던지는 패배주의와 잘못된 혼인관으로 인한 인권 말살 등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행이 되고 있었다.[12] 존 메켄지 선교사는 그의 선교기에서 한국선교초기의 문화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조선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다 담배를 피운다.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담배를 피운다. 방 가운데는 화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난방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뱃대에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거의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운다. 여기서는 담배를 거의 채소처럼 재배하며 따라서 값이 매우 싸다.[13]

---

11) Ibid., 152-153. 곽안련은 개 교회의 치리회가 독립성(自治)을 가져 속히 독자적인 권징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랐다.

12) 서정민, 「한국교회사회운동사」 (서울: 이레서원, 1995), 83.

13) Elizabeth A. McCully, *A Corn of Wheat or The Life of Rev. W. J. McKenzie of Korea*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94.

조선은 술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 제조되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악으로 간주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어떤 장소에서든지 술을 거절하면 심한 굴욕을 감수해야만 한다.[14]

불과 15세 밖에 안 된 소년이 결혼을 했으며, 그의 증조부의 연세는 57세에 불과했다. 또 다른 소년은 불과 12세에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되었다.[15]

이와 같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기준이 없는 조혼이나 축첩(蓄妾)의 문제는 한국선교초기에 교회의 부흥을 가로 막는 방해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1894년에 세례지원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적으로 동의해야 할 세례지원자 규범을 다음과 같이 채택을 하였다.

1. 至尊者 하나님은 神靈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敬拜함을 미워하시므로 祖上의 魂靈에 敬拜 드리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만을 경배하고 그를 따르라.
2. 主日은 安息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指定한 聖日이니 이 날에 사람이나 家畜을 莫論하고 일하지 말되 日用品의 購入도 하지 말고 絶對的으로 必要한 일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主日만은 嚴重하게 지켜야 한다.
3. 父母를 孝道로 받들라 하심은 하나님의 命令이니 父母 生存時에 至誠으로 孝道하고 全力을 다하여 父母에게 孝道하되 하나님의 命令으로 알고 行하여야 한다.
4. 하나님께서 한 男子에게 한 女子를 定하여 주셨으니 彼此에

14) Ibid., 82.
15) Ibid., 77.

버리지 못할 것이며, 女子는 아내만 되고 妾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男子는 한 아내의 男便이 되고 蓄妾破倫者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거룩한 道를 信奉함은 第一次的 任務이니 信者마다 食口들을 시켜서 讚頌과 祈禱를 하게 하며 또한 一心으로 主를 依支하고 順從하게 하여야 한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命하셨으니 누구든지 일하지 아니하면서 먹고 입어서는 아니된다. 게으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올바르게 살고, 힘써 일하여 너와 네 食口를 살려야 한다.
7. 聖經은 飮酒와 賭博을 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다툼과 싸움과 殺人과 傷害의 인본이 張本이 되니 그러한 행동은 絶禁한다. 또한 술과 阿片은 만들거나 먹거나 팔지도 말고, 집에 賭博場을 벌리지 말고, 남의 行爲를 墮落시키지 말아야 한다.[16]

선교사들은 세례지원자 규범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일성수는 물론이고, 음주와 흡연, 아편, 도박, 나아가 축첩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습관과 관습을 금하고 신앙으로 결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세례지원자 규범을 통한 세례교육은 한국교회 초기에 개 교회들마다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그 시행이 얼마나 철저하였는지 한 예로 1900년도 전주교회에서는 54명의 세례지원자들을 교육한 후에 사흘에 걸쳐 문답을 하고 겨우 6명만이 합격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17] 나머지 48명은 원입교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세례를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 1900년대 초에 서울의 새문안교회에서도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세례문답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대부분

16) R. E. Speer, *Report of 1897 Visit,* 16.

17)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100년사」 (서울: 쿰란출판사, 1999), 154.

의 경우 첫 번째 문답에서 통과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적어도 두세 번의 문답을 거쳐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18] 그리고 새문안교회에는 고대인 제도도 있었다. 고대인은 세례문답에서 떨어지고 대기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고대인의 경우에 4,5번의 탈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한국교회는 세례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였는데, 철저한 세례교육은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 권징의 시작이 되었고, 세례문답 자체가 권징의 도구가 되었다.

### 2.2.1. 혼인에 관한 권징

곽안련은 한국선교 초기 선교사 공의회(宣敎師 公議會, 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 당시 공의회에 올라오는 치리사건의 절반이 복잡한 결혼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19] 조혼이나 중혼을 비롯한 복잡한 혼인으로 인한 문제가 당시 한국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이것이 선교초기에 선교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로 대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에 공의회는 1901년에 공의회 소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연구하기로 하고, 1904년에 초안을 만들어 「婚姻事協議委員」으로 결의하기에 이른다.

①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결혼 생활하는 이에게는 당회가 세례를 베풀지 말 것이며 회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여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시벌할 것
② 이혼의 이유는 음행뿐이며 누구든지 다른 연고로 인하여 이혼하면 당회는 그에게 시벌할 것

18) 새문안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 「새문안교회문헌사료집제1집」 (서울: 새문안교회, 1987), 42.
19)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3.

③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로 정할 것이며
④ 조선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중대한 일인즉 청혼할 때에 조심하여야 함
⑤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일이 생기면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벌에 부치는 등 원입인으로만 간주케 할 것[20]

공의회는 복잡한 혼인 문제를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결혼을 하는 자나 한 자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05년 경남 칠원에서 열렸던 도사경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결혼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기도 하였다.

일은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못할 일이오,
이는 남녀 성혼의 나이가 차기 전에 미리 결혼하여 두는 풍속을 폐할 것이오,
삼은 혼사를 부모가 주장하나 자식의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못할 일이오,
사는 처녀 십 육세 남은 십 팔세에 성혼 하는 것을 금치는 아니하나 이 삼세 더 기다려 하는 것을 교회서 아름답다 할 일이오,
오는 세례 받은 처녀가 세례 안 받은 남자와 결혼치 못할 일이오,
육은 선급돈을 금할 일이오[21].

본 결의서는 세례를 받은 처녀가 세례를 받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교인이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을 할 수 없음을 결의함으로 교인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함을 밝히고 있다. 혼인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장로교 독노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1908년

20) 곽안련, 「장로교회사 전휘집」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18), 51.
21) 김영찬, "부산릭신", 「그리스도신문」 (1906. 1. 11), 43-44.

연동교회당에서 열렸던 제2회 독 노회에서는 중혼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기를 첩있는 사람은 원입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22] 독노회는 중혼을 한 자를 세례교인의 자격은 물론이고 나아가 교인의 자격에서도 배제를 함으로 교인의 중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1910년 평안북도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던 제4회 독 노회에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유칙(죠션 예수교 쟝로회 유측)을 정하여 첩 있는 사람이 학습인이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23]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는 혼인에 관하여 강력한 권징을 행함으로 혼잡한 결혼문화를 바로 잡아 신앙 안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고자 노력하였다.

### 2.2.2. 주일성수(聖守)에 관한 권징

주일성수에 관한 문제는 한국교회 초기부터 교인들을 위한 중요한 신앙교육의 내용이었다. 1912년 평양 여성경학원에서 열렸던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김천일이 총회에 주일과 월요일의 관계에 관하여 헌의(獻議)하였는데 총회가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 김쳔일시의 헌의ᄒᆞᆫ 월요일을 례ᄇᆡ일이라 ᄒᆞᆯᄂᆞᆫ지 례ᄇᆡ이일이라 ᄒᆞᆯ ᄂᆞᆫ지 뭇ᄂᆞᆫ말에 ᄃᆡᄒᆞ야ᄂᆞᆫ 월요일은 례ᄇᆡ일노 작뎡ᄒᆞᆫ일[24]

김천일의 헌의는 월요일을 예배일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이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는데 총회는 예배일일로 하자고 결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한국교회가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규정하여 중하게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한국교회는 주일성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례를 주는 일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

22) 「예수교쟝로회대한로회뎨이회회록」, 15.
23) 「예수교쟝로회죠션로회뎨ᄉᆞ회회록」, 10, 20.
24)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일회회록」, 28.

그래서 앞에서 밝힌 대로 1894년의 세례지원자 규범에도 주일성수는 다른 규범들에 비하여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이었다. 1907년 서울 새문안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대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아는 것은 없으나 행위 있음
② 잘 믿고 행위 있음
③ 성경 뜻 잘 알고 행위가 조흔 사람이요
④ 쥬일 잘 지키고 믿음 조흠
⑤ 성찬 세례 뜻 잘 모르나 행위 잇스니 세례 작정함[25]

새문안교회의 세례의 기준은 믿음과 행위였다. 또한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성수주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새문안교회에 고대인(세례문답에서 탈락한 자)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대부분이 주일 성수문제 때문이었다. 술과 우상숭배와 같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주일성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새문안교회 당회가 세례문답에 있어 주일성수문제를 다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 증거라고 할 것이다.

1911년 대구 남문안 예배당에서 있었던 제5회 독 노회는 관직(官職)으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에 관한 세례여부에 관하여 답을 하고 있다. 독 노회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26]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 주일성수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는 세례에 있어 주일성수를 중요한 항목으로 여겼다. 주일성수문제는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 세례지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교인들에 대한 엄격한 권징의 문제였다. 부산의 최초교회인 부산진교회에서는 주일을

25) 새문안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 「새문안교회문헌사료집제1집」, 43.
26) 「예수교쟝로회죠션로회뎨오회회록」, 22.

지키지 않은 성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징을 행하고 있다.

> "김영호 그 전에 젊은 여인과 희롱도 하고 또 육체일로 인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고로 잠고 정지시키리고 작정하다. 김취복 육체일로 주일 지키지 아니한 고로 잠고 정지시키기로 작정하다"(1908년 2월 당회록)
>
> "박윤옥이 주일에 탈상집 연석에 참예한 고로 불러 책망하다"(1909년 6월 19일 당회록)[27]

부산진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 육체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주일을 어긴 죄로 여기고 있다. 또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이웃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주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아 책벌을 하였다. 이렇듯 초기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에 관하여 엄격한 권징을 적용함으로 교인들의 성수주일을 중요한 신앙의 의무로 여겼다.

### 2.2.3. 음주 흡연에 관한 권징

최근의 한국교회에서 금주나 단연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문제는 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개인의 선택적 사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는 금주나 단연에 관하여 더 이상 강조하지를 않는다. 하지만 초기 한국선교에 있어서 금주와 단연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것은 음주나 흡연이 사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나 흡연은 우선적으로 건강에 해악을 가져왔다. 당시 어릴 때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음주나 흡연은 자연히 건강을 해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켰으며, 가정과 사회의

27) 부산진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부산진교회100년사 1891-1991」 (부산: 부산진교회, 1991), 97.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 초기부터 교회 안에서 금주와 단연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1894년 공의회의 세례지원자 규범에서는 음주와 도박 등을 엄히 금하고 있다. 술은 먹지도 만들지도 팔지도 말 것을 명하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세례지원자 규범에서는 술을 먹는 것이나 만드는 것이나 파는 것을 같은 죄로 보고 정죄하고 있다. 유진벨(Eugene Bell, 1868- 1925) 선교사가 목포에서 선교를 시작 한지 얼마 후에 김윤수를 교인으로 맞아들인 일이 있었다. 김윤수는 나중에 조사(助事, helper, assistant)가 되어 유진벨 선교사의 선교를 도왔고, 광주제일교회를 설립하는데도 큰 공헌을 하고 후에 광주제일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다. 유진벨은 김윤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 1900년 제2차 목포교회 당회에서는 김윤수를 교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난 종기를 오원 의사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양조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죄악이 된다고 말하자 본인도 이일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었다. 이 일로 학습문답에서 불합격이 되게 되었으며,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당회장의 권면으로 양조장 운영을 포기하고 다시 학습문답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만에 문답에 합격을 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김윤수는 부인과 장모까지 교회로 인도했으며, 그의 가정은 목포교회 교인이 되었다.[28]

28) 양동제일교회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양동제일교회100년사」 (서울: 쿰란출판사, 1997), 125. Oct, 1902, The Missionary, 485쪽 재인용.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김윤수와 같이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에게 조차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술을 먹는 것과 파는 것과 만드는 것을 같은 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초기 한국교회는 금주와 단연을 시대적 상황을 뛰어 넘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결단에 관한 문제로 대하고 있었다.

대구지역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의 초창기 세례문답요령에는 세례지원자의 회개의 증거로 금주와 단연을 명시하고 있다.[29] 금주와 단연을 단순한 생활의 변화로 보지 않고 죄악된 생활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거듭난 신앙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다는 것과 금주와 단연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주일성수와 조상제사 중지, 도박의 금지, 축첩의 반대 등과 함께 금주와 단연이 세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취급이 되었다.[30]

## 2.3 직분과 권징

오늘날 한국교회는 직분자들에 대한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에 대한 권징이 자칫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직분자들에 관한 권징을 외면하는 편이다.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는 직분자들에 관하여 단호한 권징을 하였다. 때로는 평신도들에 비하여 강하게 권징을 시행하여 직분자들을 출교를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에

29) 이상근, 「대구제일교회90년사」 (대구: 대구제일교회90년사출판위원회, 1983), 170.
30)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171.

관한 권징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직분자들로 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직분자들에 대한 올바른 권징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한 올바른 권징의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곽안련(C. A. Clark, 1878-1961) 선교사는 아직 독노회도 생기기 전인 1890년대 초에 평양지방의 한 장로가 장로 장립을 받고 난 뒤에도 흡연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당회가 그의 직분을 정지시켰다고 전하고 있다.[31]

한국장로교회도 1912년 제1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남평안노회가 황주 용수골교회 장로인 류경찬을 첩을 얻은 일로 책벌을 하고 있다.[32] 당시에 첩 제도는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회는 사회적 통념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들에 관하여 권징을 행하였다. 같은 총회에서 전라노회도 여러 권징건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목포교회의 장로였던 양성률씨의 장로직을 면직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목포당회에 쟝로되야던 량셩률씨는 힝위가 불미암으로 본 당회에셔 직분을 거두엇시며[33]

양성률씨는 1911년 10월 전주서문밖교회당에서 열렸던 전주노회에서도 노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다음 해 총회에서는 면직되었음이 노회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장로로서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

31)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149.
32)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일회회록」, 48.
33) Ibid., 58.

만큼의 부도덕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 이렇듯 한국교회 초기 당회와 노회는 중직자들에 관한 권징에 있어서도 엄격하였다.

이러한 권징의 예는 개 교회 당회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인 전주서문교회에서는 1915년에 전도인이며 장립집사였던 한 충실한 성도가 사면서를 당회에 제출한다. 당회는 사면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살펴보고 받기로 하고 살펴보던 중에 그 성도가 7계명을 어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회는 사면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도를 출교처분을 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라면 사면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무마하여 교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철저하게 과오를 살펴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주서문교회 당회는 부인까지 함께 권징을 하여 출교 외에 가장 중한 책벌인 수찬정지의 책벌을 가하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인이 책벌을 받은 이유는 남편의 범행사실을 교회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4] 죄를 밝히지 않고 덮어주는 것도 죄라고 여긴 것이다. 당회는 권징의 내용을 교회에 공포함으로 권징을 시행을 하고, 교인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다. 부산의 초량교회에서도 초기 당회에서 직분자들에 관한 권징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 입교인 고영표가 불신자를 아내로 맞은 것은 신덕에 합당치 못하나 오랫동안 병환으로 지내다가 취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형편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벌한다(1918. 11).

고영표는 교회의 영수를 지냈으며, 후에 초량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그는 교회를 위한 귀한 인재였으나 교회는 죄책을 묻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

34)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100년사」, 232.

오히려 이러한 교회의 결단과 노력으로 인하여 고영표가 회개를 하고 후일에 초량교회의 중한 일꾼으로 사용되어 졌다고도 볼 수가 있다.

> 김용진씨는 첩과 동거한다는 소문이 있어 당회가 편지를 보냈으나 회답이 없으니 7계명을 위반한 줄로 알고 또 주일을 지키지 않으니 1년 동안 책벌한다.

김용진씨는 당시 장로로 피택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언권을 가진 자였으나 당회가 책벌을 하고자 할 때에 응답하지 않는 관계로 당회는 소문만 가지고 7계명으로 책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는 일로도 1년 동안의 중한 책벌을 하고 있다. 초량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권징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권징을 시행한 초기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았다. 1918년 5월에 열렸던 전북노회 임시노회는 전북노회 초대노회장을 지낸 이원필목사가 7계명을 범한 일로 인하여 권징을 시행하고 있다. 노회는 본인의 자백과 증거가 있음을 노회 앞에 고하고 이원필 목사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출교처분을 내렸다.[35] 이와 같이 초기 한국교회는 상회인 노회나 총회가 권징에 철저하였기에 하회인 당회도 권징에 충실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상회의 권징이 인위적인 타협으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본다. 상회의 권징의 실종은 결국 하회의 권징의 실종을 가져오고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과거 일제강점기 말엽 한국교회가 행한 신사참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을 하였다. 노회와 총회가 가결하여 시행한 신사참배로

35) Ibid., 274-275.

말미암아 상회는 권징의 시행자에서 대상자로 전락하게 되어 하회를 제대로 권징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회의 권징의 실종은 하회의 권징의 실종을 가져왔고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그 영향으로 내부적으로 서서히 권징이 사라져 갔다. 초기 한국교회가 보여 준 직분자들을 향한 철저한 권징의 시행과 정신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들의 신앙의 순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교회였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권징을 충실히 시행하여 교인들의 신앙의 본을 삼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

## 2.4. 이명(移名)과 권징

초기 한국교회에 권징의 시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였던 것이 앞서 언급한 세례문답과 더불어 이명(移名)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면서 장로회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당회의 직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에서 이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당회의 회원이 될쟈는 지교회의 목ᄉᆞ와 쟝로-니... 교인이 이샤ᄒᆞ야 오거나 가거나 ᄒᆞ면 ᄎᆞ쳔거셔를 밧고 주며...[36]

한국교회 초기 이명은 당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였다. 1908년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회 독노회에서는 이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다.

---

36) 「대한예수교쟝로회로회록」, 34.

교인셩명 옴기는 경우에는 쳔셔를 주는 거시 당회의 샹관이나 당회업는 곳에는 조ᄉᆞ와 령수가 즉시 쳔셔를 주고 본 디방목ᄉᆞ씌 보고할 일[37]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 개 교회는 당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이명처리에 철저하였는데, 당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사와 영수가 이명증을 교부하고, 이명 상황을 지방을 관할하는 목사에게 보고 하여 이명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다. 1909년 평양신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독노회에서는 개 교회가 이명서를 처리할 때에 이명서에 책벌의 내용까지 기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각 당회에서 칙벌된 교우가 이ᄉᆞ홀때에 쳔셔즁에 칙벌ᄉᆞᆺ지 긔록홈은 이후 회기ᄒᆞ면 그 당회에서 칙벌푸는 권한ᄉᆞᆺ지 허락ᄒᆞ는줄노 인증홈[38]

1909년 제3회 독노회는 이명시에 책벌을 기록하여 책벌대상자의 이명을 받게 되는 교회가 이명자(移名者)의 회개여부를 따져 책벌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권한까지 함께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교인의 신앙상태를 이명이행하진 이후에도 이명을 받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책임 있게 돌아보도록 한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옮기는 행위를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데 악용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쪽 교회에서 권징의 상태에 있게 될 때에 다른 교회로 이동함으로 권징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들이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징을 외면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는 이명을 함에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상태를 살펴서 이명을 받는 교회들이 교인들의 신앙상태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37) 「예수교쟝로회대한로회뎨이회회록」, 18.
38) 「예수교쟝로회대한로회뎨삼회회록」, 25.

부산의 제일영도교회에서는 부산진교회로부터 한 성도의 이명을 받으면서 이명을 청원한 교인이 아직 책벌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제일영도교회는 부산진교회에 해당 교인에 관하여 해벌절차를 밟은 후에 신앙의 하자가 해소된 상태에서 이명증서를 새롭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39] 이것은 당시의 교회들이 이명과 더불어 책벌과 해벌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신분세탁의 한 방법으로 전락하는 것은 교회나 개인에게 결코 이롭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철저한 이명절차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무형교회로 책임을 지고 교인들의 신앙상태를 더불어 점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1911년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있었던 제5회 독 노회에서 경성대리회는 이명증서와 혼인증서를 규칙원에게 보내어 대리회가 이명과 혼인에 관한 정치와 권징을 잘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명을 각 당회의 소관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늘날의 노회 격인 대리회가 개 교회의 이명을 힘써 살피고 나아가 독노회에 까지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성도의 이명을 개 교회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돌아보아야 할 교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생명록이라고 칭하였다. 부산의 초량교회에서도 초기에 생명록이 있었다. 생명록에는 이명과 함께 해벌도 기록을 하였다.

> 전에 믿다가 10여 년 전에 낙심되었던 김성달 씨는 지금은 회개하여 주일을 잘 지키므로 새로 문답한 후에 잘 되면 재입교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1917.8.24).
>
> 일 년 동안 책벌아래 있던 신덕주 부인은 만기가 되어 해벌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입하기로 하다(1919.2).

39) 제일영도교회, 「제일영도교회100년사」 (부산: 육일문화사, 1997), 209.

책벌 중인 윤년이 부인은 지금 회개한 증거가 있으니 해벌한다(1918.12).

이장현 씨는 전에 낙심했다가 지금은 잘 믿는 고로 문답한 후에 다시 입교인으로 한다(1920. 4).

박세탁, 장치언, 장인선 씨는 이명을 받아 생명록에 기록한다(1920.7).[40]

이정주는 책벌기간이 끝났다(1921. 7).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이동이 너무도 자유롭다.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믿게 하는 경우보다 교회들 간의 교인이동으로 말미암은 수평이동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개 교회들도 이러한 수평이동의 분위기를 은근히 환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초량교회 당회는 이명을 교회의 생명록에 기입을 하여 해벌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교인이 자신의 신앙훈련을 맡겼던 몸 된 교회를 이동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벌 받을 일이 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초량교회의 생명록은 할 수 있는 대로 교인은 자신이 세례를 받은 교회를 꾸준히 잘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교회이동이 너무도 쉽게 행해지고, 개 교회도 이명자에게 이명서나 책벌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교인들의 숫적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갈수록 교인들의 신앙상태를 병들게 하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40) 초량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초량교회100년사」 (부산: 대한예수교장로회초량교회, 1994), 106-109.

## 3. 해방 이후 한국교회 성장과 권징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많은 성장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엽 신사참배로 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잠시 그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해방을 맞이하고서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해방을 전후하여 겨우 약 20만 명에 불과하였던 교세가 해방이후 40년 동안에 무려 30배 이상 성장을 해서 80년대에 이르러 7백만 명을 넘겨 8백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에 비하여 교회 안의 권징은 사정이 달랐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말엽 신사참배의 가결과 시행을 통하여 상회인 노회, 총회가 권징의 대상이 되어 권징의 실종을 초래하였다. 상회의 권징의 실종은 하회인 개 교회 당회의 권징의 실종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였다.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상회는 해방이후에 스스로 자신들에게 권징을 행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상회들은 그 기회를 외면하고 말았다. 하나의 예로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 복권 문제가 있다. 주기철 목사는 1939년 12월 19일 남문밖교회에서 열렸던 제37회 평양노회 임시회에서 주 목사가 <총회의 결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면직이 되었다. 이것은 평양노회가 결의하고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였다. 상회의 분명한 잘못된 권징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권징이 77년 동안이나 수정되지 않고, 77년만인 2016년 6월 21일에 가서야 평양노회 임시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 복권이 결정이 되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와 노회의 잘못에 관하여 해방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상회가 스스로 권징의 대상이 되고, 또한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권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상회는 권징을 행사하는 최고 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개 교회도 이러한 상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권징의 당위성을 상실하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권징이 사라져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철저한 권징은 갈수록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져 갔다. 교인들은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을 더 이상 신앙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성수주일의 개념도 점점 희미해져 권징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의 차이로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과거 세례지원자들을 단속하듯이 교회가 관여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만 여기고 있다. 이렇게 교인들의 삶을 향한 교회의 권징은 한국교회 안에서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해방이후 한국교회에서 과거와 달리 개 교회의 권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은 이명이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앞에서 밝힌 대로 교인들이 교회를 이동할 때에 철저한 이명절차를 따랐다. 그래서 교인들의 함부로 쉽게 교회를 옮기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교인의 신앙상태를 모든 교회들이 더불어 관리를 하게 하였다. 하지만 해방이후에는 갈수록 이명절차가 사라지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60년대 이후로 교회들마다 성장에 관하여 과도한 열심을 내면서 과거와 같은 이명절차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하였고, 개 교회들은 교인들의 신앙상태의 점검 보다는 우선 숫적인 증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41] 그래서 한국교회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외적

41)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이명서 없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회를 이동하고 있다. 개 교회도 수평이동으로 인한 교회성장에 은근히 동조하며 이명절차를 거치지 않는 교인들을 검증 없이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항존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는 항존직의 이동을 이명 없이 받아 임직이 아닌 취임을 통하여 축하잔치를 베풀고 있다. 직분은 직분을 받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항존직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받은 교인들

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 안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게 되었고, 교회 밖으로도 과거와 달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2천 년 대 넘어오면서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외면 받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42]

이렇게 한국교회는 교인수는 증가하였으나 권징은 상당부분 사라졌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대리회와 노회를 통하여 독노회와 총회에 올라오던 권징에 관한 보고들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당회록에서도 더 이상 권징에 관한 회의 기록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초창기 개 교회의 생명록과 같은 이명과 해벌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권징은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국교회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성장을 멈춘 것이다. 60년대 이후로 권징을 외면하면서 까지 숫적 증가에만 매달린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1995년 875만여 명이던 교인이 10년이 지난 2005년에는 861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43] 최근 2015년 통계에서는 조금 성장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각주에서 밝힌 대로 개 교단의 교세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통계보다 실재 개 교회의 성도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교

---

이 교회를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개 교회는 이명절차 없이 받아 검증 없이 직분을 주며 취임을 축하하는 잔치까지 베푸는 한국교회의 최근 행태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2) 한국교회가 2015년 들어 통계적으로 10년 전보다 조금 더 상승했다고 하지만 실제 각 교단마다 보고하는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전체 교인은 상승하는데 개 교단의 교인은 줄어드는 기현상은 결국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단과 같은 비정통교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4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37847 [ebook] "예장통합 교인수 감소가 주는 교훈" 국민일보 2012년 9월 13일자.

회의 정체와 함께 따라오는 교회 안 젊은이들의 실종이다. 통계청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기독교인 수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1985년엔 20~24세 사이의 기독교인이 75만6395명이었고 75~79세는 3만857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15년에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 20~24세 사이 교인이 53만3428명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75~79세까지는 28만2537명으로 대폭 늘어나 있다. 1985년엔 청년들이 노년에 비해 19배나 많았지만 2015년엔 노년 교인이 청년들의 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있는 것이다.[44]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정체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 20년 후를 진단할 때에 현재의 노년층이 한국교회를 떠난 이후의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 하고 있다.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소통의 부재와 교인들과 교인들 간의 분쟁 등으로 한국교회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에 관한 진단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권징의 부재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 해방이후 수십 년 계속된 권징의 부재는 결국 한국교회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비대해졌으나 건강하지 못하여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쓰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권징의 회복을 촉구한다. 당장 응급 처방은 되지 않더라도 권징의 회복은 한국교회를 갈수록 건강하게 하여 시대를 극복하게 할 것이고, 이 시대에 희망을 제시하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감으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74471&code=61221111&cp=nv [ebook] 장창일, “종교개혁이 남긴 숙제” 국민일보 2017년 11월 3일자.

# 4. 나가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권징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의 기능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보았다.[45] 칼빈에게 있어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이었고, 은혜의 통로였다. 신학자 벌코프에게 권징은 말씀과 성례와 함께 교회의 표지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권징의 신실한 집행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벌코프는 "지상에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는 권징을 성실하고 부지런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였다.[46]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도 종교개혁자들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권징에 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초기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 힘써 권징을 시행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의 권징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세례지원자들의 10% 정도밖에 문답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세례문답을 다시 준비하는 고대인들이 존재할 정도로 초기 한국교회의 세례는 매우 엄중하였다. 당시에는 세례문답이 교회 권징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권징은 교인들의 삶에 철저하게 시행이 되었고, 교인들이 이명을 할 때에도 책벌의 내용까지 이명서에 기재하여 이명을 받는 교회와 당회가 이명자의 신앙상태를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철저한 권징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선교가 시작 된 후 계속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병원과 학교등과 같은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일제강점기하에서 독립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함으로 사회로 부터도 지지를 받는 종교로 성장해

45) 윤은수, "개혁신학에 나타난 '권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9), 51.

46) Louis Berkhof,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835-836.

갔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해방을 맞은 이후에는 더욱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개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의 바람을 타고 힘써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였다. 기도원운동과 부흥회와 같은 신앙운동들도 한국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90년대가 넘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세를 멈추고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정체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는 그 원인 중의 한 가지로 권징의 실종을 말하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말엽의 신사참배로부터 온전한 회개 없이 시작한 교회였다. 그리고 후에도 한국교회는 권징의 회복 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하여 천국의 열쇠와 교회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권징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였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권징이 없는 세례를 베풀었고, 이명증이 없이도 쉽게 등록을 받았으며, 교회의 이동으로 얼마든지 신분세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도 정체를 거듭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사회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세대간에, 그리고 직분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에 권징의 회복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징이 살아서 말씀과 성례를 보호하고 교회를 정화하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조금 더디기는 해도 한국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부흥의 열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명증서를 제대로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과 2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다가 쉬었던 사람들만 그냥 등록을 받고, 기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명증서를 요구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47] 그 후로 그 교회는 새로

47) http://weekly.donga.com/3/all/11/938763/1 주간동아 2017년 5월 30일자. 이상대, "대형 교회 병 고쳐야 한국 교회가 산다."

오는 교인들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회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록지원자들에게 이명증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교회의 권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더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자정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와 같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민족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징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의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상회의 잘못을 다시금 회개하고, 그동안 실종되었던 교회의 권징을 회복하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건강하게 부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참고문헌

곽안련,「한국교회와 네비우스선교정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곽안련,「장로교회사 전휘집」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18.
김영찬, "부산릭신",「그리스도신문」1906. 1. 11.
부산진교회 100년사편찬위원회,「부산진교회100년사 1891-1991」부산: 부산진교회, 1991.
새문안교회100주년기념사업회,「새문안교회문헌사료집제1집」서울: 새문안교회, 1987.
서정민,「한국교회사회운동사」서울: 이레서원, 1995.
양동제일교회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양동제일교회100년사」서울: 쿰란출판사, 1997.
「예수교쟝로회대한로회뎨이회회록」.
「예수교쟝로회대한로회뎨삼회회록」.
「예수교쟝로회죠션로회뎨ᄉᆞ회회록」.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일회회록」.
「예수교쟝로회죠션총회뎨오회회록」.
윤은수, "개혁신학에 나타난 '권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09.
이상규,「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서울: 생명의 양식, 2010.
이상근,「대구제일교회90년사」대구: 대구제일교회 90년사 출판위원회, 1983.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전주서문교회100년사」서울: 쿰란출판사, 1999.
제일영도교회,「제일영도교회100년사」부산: 육일문화사, 1997.
초량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초량교회100년사」부산: 대한예수교장로회초량교회, 1994.

Berkhof. Louis.,「조직신학」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Clark. C. A.,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Seoul: CLS, 1937.

Clark. C. A., *The Nevius Plan of Mission Work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30.

McCully. Elizabeth A., *A Corn of Wheat or The Life of Rev. W. J. McKenzie of Korea*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Nevius. John L.,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New York: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ddions, 1899.

Nevius. John L., *The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

Speer. R. E., *Report of 1897 Visit.*